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 생각 듣는다'

## 내달 14일까지 제도 운영 관련 10개 항목 설문조사 나주시 SNS·누리집 통해 ... 참여 이벤트 진행

나주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제도에 대한 주민 인지도 파악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문항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주민 인지도 △제도 필요성 △참여 의향 △적합한 사업 분야 △내년도 중점 투자 분야 △개선·건의사항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참여는 나주시 공식 SNS채널(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나 시청 누리집 설문조사 안내 팝업창에 접속하면

된다. 설문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커피 모바일교환권(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중점 분야 조정과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점투자분야 등을 파악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투자 방향·분야별 선호도를 파악해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겠다"며 "코로나19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출구조 조정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시의회, 시민들과의 공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은 202억원 규모 총 94건의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해 현재 부서별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참여예산안은 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해 연 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구례에서 여순항쟁 전국유족연합회 회의

###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위한 총력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여순항쟁 전국유족연합회 회의가 7월 29일 구례군에서 열렸다. 여순항쟁 구례군유족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여순항쟁 전국유족회장단 및 구례군 이두성부군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7월 28일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제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으나 끝내 발의되지 못하였고, 마침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전남 동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동법안으로 발의되었다.

이규종 여순항쟁 전국유족연합회장은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는 유가족, 시민단체 및 의원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낸 결과이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우리 유족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이번 10월에 구례군에서 열릴 위령제를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전국 유족이 다시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례군 관계자는 "여순사건 특별법 공동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여순항쟁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70년을 넘는 세월 동안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면 이번 특별법 발의가 얼마나 소중한 결과물인지 잘 알 수 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 장성군, 기업체 대상 '숨은군민찾기'

### 다양한 지원정책 안내... 주소 이전 편의 제공도

장성군의 고용률 및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장성군의 고용률은 68.9%로 전년보다 3.5%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는 13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같은 결과가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군민찾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은군민찾기'는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지역 내 실거주자의 전입을 유도·지원하는 활동이다. 최근에는 장성군 인구정책팀과 산단특구팀이 동화농공단지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어프로젝트'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언어프로젝트'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언어의 습성에서 착안한 장성 고유의 인구 증가 정책이다. 금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주민에게 1인당 10~15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전입한 직원 5인 이상인 기업체, 기관, 단체 등에는 30~300만원의 유공기관 장려금도 지급한다. 또한 결혼축하금, 기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전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무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전입 신고 서비스'도 기업체 직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전입 신고 서비스'는 전입신고팀이 방문해 전입 신고와 전입장려금 신청을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인구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물론 교부세 등 국고보조금 산정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거주 유형별 미전입 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관외 거주자가 많은 400여 곳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성군의 인구정책을 안내하고, 전입 신고 동장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후, 관내 4개 산단별 협의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거버넌스 추진을 통해 관내 기업체 직원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 담양군,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모집

### 내달 3일부터...소수 인원 구성 이론 및 실습 교육 병행

담양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을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 내 촬영 및 편집장비 사용법을 위주로 진행되며 9월부터 15명씩 두 기수로 나눠 약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소수인원으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촬영

및 편집장비 이용법을 잘 습득해 농산물 촬영 스튜디오를 통해 농산물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 모집기간은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061-380-3449) 또는 전화(061-380-3442)를 통해 할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화순군, 공공시설 운영 재개...일부 시설은 당분간 휴관

### 문화예술·경로당·실외 체육 시설 내달 3일부터 개방

화순군은 지난 26일 코로나19 방역단계를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8월 3일부터 공공 복지·문화예술 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단계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공공·민간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어린이집 40곳, 지역자활센터 등 일부 복지시설이 운영을 시작했다. 군은 방역 수칙, 입장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공공시설의 재운영 준비에 한창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 단계적으로 공공시설을 개방할 방침이다.

우선 8월 3일부터 마을 경로당 435곳, 공공도서관 2곳, 게이트볼·국궁장·축구장 등 실외 체육 시설 20곳, 청소년문화의집과 방과후 아카데미를 개방·운영한다. 화순군립석공미술관, 화순군립전통문화사민화관, 오지호 기념관, 화순예술인촌 등 문화예술 시설도 재개관한다. 이에 따라 화순군 능주면 화순예술인촌에서 열리고 있는 '군립구월우 선생 유작전' 관람도 할

수 있다. '묵향, 기억이 머문 그곳'을 주제로 지난달 16일 오픈한 구월우 선생 유작전에서는 사군자와 서예 22점을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설은 운영 중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실내 체육시설 3곳(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이용대체육관·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나드리노인복지관, 산림 휴양시설(백아산자연휴양림·한천자연휴양림), 만연산 치유의 숲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 일 남

# 범 상 다

# 한 속 른

#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